
볼리비아 사회주의운동당(MAS)은 더 이상 예보의 리듬에만 맞춰 춤추지 않는다

페르난도 몰리나

기자, 작가

원제와 출처: Fernando Molina, “El MAS boliviano ya no baila solo al ritmo de Evo”,
Nueva Sociedad, No. 299, mayo–junio de 2022, pp.93–104.

핵심어: 사회주의운동당(MAS), 루이스 아르세 카타코라, 예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2022년 3월 29일,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MAS)은 광산 도시 오루로에서 창당 2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당의 주요 지도자 세 명, 즉 이 운동의 확실한 리더로 여겨지는 예보 모랄레스, 볼리비아의 현직 대통령이자 모랄레스 내각의 전 경제재정부 장관이었으며 2006년부터 볼리비아에서 시행 중인 경제모델을 만들어낸 루이스 아르세, 현재 부통령이자 모랄레스의 전 외교부 장관이었으나 2017년부터 모랄레스와 소원해진 다비드 초케우앙카가 참석했다. 행사는 별 이변 없이 진행되었다.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이 아니었다면 볼리비아 집권 여당이 처한 심각한 문제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모랄레스는 연설에서 자신의 운동이 '독특하다'고 짚었는데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그가 언급한 대로, 농민과 노동자로 이루어진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직접 조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게 20세기 내내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던 볼리비아 좌파의 단합을 거의 27년간 표상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볼리비아 역사상 매우 특수하고도 유일무이한 집단이라는 점 때문에 탄생한, 유일한 좌파 전선이라는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여건은 현재 의문스럽다. 기념행사 무대에 함께 앉아 있던 인물들은 제각기 다른 당파를 대표한다.

모랄레스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서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2020년 11월에 귀국한 이후 당 집행부를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아르세는 얼마 전인 2020년 10월에 55%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당 내의 여러 기구와 정파 간에 권력을 배분하긴 했지만 아르세주의자가 핵심을 이루고 과거 모랄레스의 주요 협력자들, 즉 2006~2019년에 권력을 쥐고 있던 측근들은 지엽적으로만 통합된 정부를 구성했다.

사회주의운동당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요구는, 모랄레스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파벌들의 논쟁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런 혁신을 주창하는 주요 인물은 오랫동안 모랄레스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후계자로 여겨진, 옛 친위대의 일원 다비드 초케우앙카다. 2020년 11월 8일 부통령 취임 선서 후의 연설에서 초케우앙카는 권력은 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년들에게 바통을 이어 받으라고 끊임없이 독려하고 있다. 초케우앙카는, 모랄레스가 지배하는 국가 지도부에 의해 어떤 이유로든 사회주의운동당에서 멀어지거나 내쳐졌다고 느끼는 중견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모랄레스 전직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만큼 초케우앙카에게는 도움이 된다.

초케우앙카는 2016년 당시 대통령의 세 번째 재선 자격을 묻는 국민투표 이후 모랄레스와 대립했다. 사회주의운동당은 패배했고, 초케우앙카는 모랄레스

의 후임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모랄레스는 2017년 초케우앙카를 외교부 장관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후 초케우앙카는 차관급 외교직으로 '추방'되었고, 그의 직접적인 협력자들은 모두 한직으로 보내졌다. 결국 모랄레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논란 끝에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다.

초케우앙카에 대한 대응은 에보 모랄레스의 측근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나아가 새로운 측근자들이 형성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볼리비아 정치 집단의 논리다. 즉, 그들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카우디요 중심주의다. 리더가 몰락한다는 것은 한 집단 전체가 권력에서 이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은 이를 강하게 막으려고 한다. 반대로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하는 것은, 아르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일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집단이 부상한다는 의미다. 아르세가 모랄레스의 측근이었으며 그가 대선 후보가 된 것도 모랄레스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20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운동당이 선택한 후보는 초케우앙카였다. 모랄레스와, 아르헨티나로 망명한 핵심 인사들은 아르세를 앞세웠다. 그들에게는 볼리비아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아르세가 더 나은 후보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인 경쟁자가 최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케우앙카는 대통령이 될 기회를 잃었다. 이로 인해 모랄레스와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은 당연지사였다. 모랄레스는 극도로 자제하며 활동 중이고 그래서 엄혹한 시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옛 친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다.

기념행사에서 모랄레스와 초케우앙카는 서로 냉랭하게 인사했다. 이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언론은 이들의 만남에 주목했다. 반면, 아르세와 모랄레스는 포옹하며 미소를 주고받았다.

모랄레스가 개인적으로 정부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집단 간의 불화는 아직 사적인 것으로(또는 적어도 공공연히 사적인 것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상황이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균열의 원인

“사회주의운동당의 주적(主敵)은 배신, 야망, 거짓말로 우리와 맞서려고 하는 우파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단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월 25일 모랄레스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며칠 전 아르세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볼리비아 집권여당에 “우리 ‘변화의 과정’¹⁾의 내부 세력이 붕괴하기를 바라면서 다차원적 전쟁의 모든 힘을 활용한 비전통적인 전술”에 저항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²⁾ 이러한 성명을 통해 사회주의운동당 내에서 분열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분열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분열의 책임을 제3자, 즉 볼리비아 우파와 우파의 ‘비전통적인 전쟁 전술’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중립적인 관찰자가 보기에 사회주의운동당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내부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야당이 파벌 간의 싸움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야당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反) 사회주의운동당 편집 노선을 가진 주류 언론이 각기 다른 좌파 지도자들 간의 여하한 마찰이나 의견의 불일치를 대서특필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주의운동

1) ‘변화의 과정(Proceso de Cambio)’은 사회주의운동당 정부가 주도해온 변화의 정치적 상상을 표현하는 용어다(역주).

2) Ministerio de la Presidencia: 《La unidad del pueblo es la garantía de la democracia intercultural》, 3/2022.

당에 가장 공공연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신문인 〈파히나 시에테〉는 앞서 언급한 기념행사 이후 “분열에도 불구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회주의운동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최근 몇 달간 볼리비아 정치는 거의 전적으로 집권당 분쟁의 변천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 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사회주의운동당은 볼리비아의 모든 정당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 볼리비아의 여러 정당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일정한 내부 생활을 해왔지만, 그들의 주요 경향은 항상 개인 중심적이었으며, 이는 완전히 현대적이지 않고 식민화의 잔재에 의해 매개되는 국가의 지배적인 사회관계 형태와 관련이 있다. 볼리비아에서 국가는 약하고 늘 여러 사회 부문에 의해 채택되거나 조작되어 왔으며, 사회에 완전히 강요하거나 전체 국토를 포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도의 완전한 기능을 위한 필수 조건인 규칙과 권리가 영구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19세기 말, 자유당의 창립자인 엘리오도로 카마초는 자신의 당을 볼리비아에서 ‘특정 개인에서 벗어난 최초의 정당(primer partido impersonal)’이라고 칭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자유당은 집권하자마자 정권을 계승한 대통령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뉘었다.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제도가 약할 때에는 깨달은 개인만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질서와 확실함을 제공할 수 있다. 지도자는 그렇게 ‘카우디요’가 된다. 카우디요 중심주의는 종종 나쁘게 정의되는 개념이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오랜 문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볼리비아의 가장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인 레네 사발레타는 볼리비아에서 “대중을 조직하는 방식은 카우디요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³⁾

전국의 광범위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연합

3) R. Zavaleta: 《La creación de la conciencia nacional》 en *Obras completas I. Ensayos 1957-1974*, Plural, La Paz, 2011.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운동당은 에보 모랄레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점 때문에 농민 지도자 알레호 벨리스나 사회주의운동당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로만 로아이사처럼 최고 지도자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떠나야 했다. 최근 분열의 위협이라는 맥락에서 모랄레스는 정당을 떠나 다른 정치세력을 형성한 이 지도자들을 다시 언급했다. “우리의 첫 대통령 후보는 알레호 벨리스였습니다만 2002년에 대선 후보 만프레드 레예스 비야를 따라 떠났습니다. 최초의 배신이었지만 당은 분열되지 않았습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다음 그는 “두 번째 배신자는 로만 로아이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지만⁴⁾ 당은 역시 분열되지 않았습다”라고 지적했다.⁵⁾

당의 지도자가 선거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어 투표용지에서의 그의 존재가 추종자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한, 지도자에 대한 당의 종속은 매우 잘 작동했다 (모랄레스가 회상했듯이 어떤 반체제 인사도 사회주의운동당을 분열시킬 수는 없었다). 또한 모랄레스 정부가 많은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에 대한 접근 경로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많은 지지자들과의 후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동안은 지도자에 대한 당의 종속이 성공적이었다.

몇 년 전 파블로 스테파노니와 에르베 도 알토가 지적했듯이, 사회주의운동당을 결속케하는 것은 빈곤층과 원주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사회주의운동당 덕분에 명백해진 ‘국가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관점’이었다.⁶⁾ 얼마 전 모랄

4) 로만 로아이스는 농민조합운동의 저명한 지도자로, 1999년부터 에보 모랄레스와 정치적으로 함께 했고 사회주의운동당을 창당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2009년 인민당(Partido de la Gente)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역주).

5) Agencia de Noticias Fides: ‘Evo anuncia registro de nuevos militantes en el MAS por la existencia de ‘muchos traidores’’, 21/3/2022.

6) P. Stefanoni y H. Do Alto: *La revolución de Evo Morales. De la coca al Palacio*, Capital Intelectual, Buenos Aires, 2006.

레스는 선거에서 예기치 않게 2위를 차지한 2002년까지만 해도 그조차 사회주의운동당의 미래를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유는? 그는 자신이 마약 밀매범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운동 자체가 결실을 맺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⁷⁾ 이것이 볼리비아 정치의 실제적인 측면이다. 2002년과 2009년 사이에 원주민과 민중 대다수는 사회주의운동당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그에게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실용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즉, 가난하고 차별받던 다수가 사회주의운동당과 에보에게 투표하고, 그 대가로 사회주의운동당과 에보는 이 다수에게 물질적이고도 상징적인 권력에의 접근을 부여한 것이다.⁸⁾ 그 결과 모랄레스는 카우디오로 가득한 이 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카우디오가 되었다. 더욱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의 경제 모델이 특히 2006-2015년 사이에 잘 작동했기 때문에 변영과 사회적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랄레스는, 민족혁명(Revolución Nacional)⁹⁾의 지도자이자 4선(1964년 재선에 성공해 3개월간 짧게 재임한 뒤 쿠데타로 축출된 것을 포함해)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와 볼리비아 공화국을 건국한 안드레스 데 산타크루스(Andrés de Santa Cruz)를 포함해, 그 어떤 볼리비아 대통령보다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는 이미 언급한 것을 얻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집단들을 지지자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지지자 집단이란 거의 모든 농민 노조(처음에는 그를 코카 재배 부문의 리더로만 보았다), 중산층 노동자 노조(그들은 노동 운동가들로 농촌 지도자를 지지할 가능성에 저항했다), 대다수의 아이마라족(그가 아이마라 공동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7) Radio Kausachun Coca: 《27 aniversario del MAS-IPSP》, 29/3/2022.

8) P. Stefanoni: 《El MAS puede ganar sin Evo》 en *El País*, 19/10/2020.

9) 1952년 민족주의혁명운동(MNR: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이 주축이 되어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해 볼리비아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을 수립하려던 혁명(역주).

코차밤바의 케추아족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외부인으로 여겼다, 대다수의 케추아족(그들은 자기네 부족의 일원을 선호했을 것이다), 많은 과라니 원주민(그를 ‘콜라(colla)’, 즉 서부 안데스 고지대 사람으로 인식했다), 가장 교양 있는 신(新)마르크스주의자부터(모랄레스 정권의 부통령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처럼) 볼리비아에 남아 있는 가장 교조적인 공산주의자, 게바라주의자, 모택동주의자 그룹에 이르는 대다수 좌파 동인과 지식인 집단이다(모랄레스의 성공은, 20세기 동안 좌파 자리를 독차지하던 마르크스주의 집단들이 1980년대에 몰락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엄청난 지지를 받으며 카우디요로 변신한 모랄레스는 정치 전략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그 덕에 이후 사회주의운동당이 권좌에서 치러야 했던 많은 싸움과 권좌에서 범한 여러 과실에도 불구하고 — 그 중 가장 중대한 실수는 개인 중심적인 특징, 즉 ‘특정 개인에 대한 숭배’였다 — 지나치게 많은 피를 흘리는 걸 면할 수 있었다.

스테파노니는 이 정당의 독특한 성격을 환기시킨다. 그는 사회주의운동당이 “노동조합, 도시와 농촌, 원주민 공동체, 여러 유형의 민중 단체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로, 유기성은 거의 없지만 ‘서민층’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운동당은 항상 “영구적이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있다. 예를 들어, 포토시 북쪽에서는 원래의 아이유(ayllus),¹⁰⁾ 광부 노조, 그리고 농민 단체들을 연결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시장 등 후보자 명단에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¹¹⁾ 이는 볼리비아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10) 잉카 시대부터 이어져온 원주민들의 집단 공동체 제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역주).

11) Ibid.

자신이 통치하던 ‘영광의 시대, 즉 전성기’에 모랄레스는 숙련된 수완을 발휘해 이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모랄레스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페르난도 마요르가의 연구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¹²⁾ 이 연구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직 대통령은 공공정책, 입법, 투자 프로젝트 또는 많은 경우 직책과 고위직에 대한 정부의 주요 결정 사항들을 놓고서 사회주의운동당에 속한 노조 연합인 ‘단합 협정(Pacto de Unidad)’의 지도자들과 협상해야 했으며, 그렇게 해서 모랄레스는 내부 집단 간의 최소한의 조정 및 당과 정부 간의 연계를 일상적으로 보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모랄레스는 ‘에보주의(evismo)’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들의 단합 협정(노조 연합 이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을 계속 갱신하고, 끊임없이 재창조했다. 이 협정은 전략적인 동시에 후원주의적¹³⁾이었다. 이런 협정에서부터 그림 시적 의미에서의 힘의 블록, 즉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가진 역사적 행위자가 나왔고, 동시에 포퓰리즘적 사회 동맹, 즉 다양한 이념적 입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통합할 수 있는 동맹이 등장했다.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정부를 가능케 한 조건들은 2019년 11월, 경찰과 군부의 결정적 지원을 받은 백인의 후손¹⁴⁾이자 중산층의 반란에 의해 사회주의운동당의 수장이 전복되면서 끝났다. 모랄레스와 그의 집행부는 지하로 숨은 후 본국을 떠나 외국의 보호를 구해야만 했다. 그때 모랄레스는 당원이 거의 백만 명에 달하는 거대 정당에 대한 통제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했다. 당원 대부분은 권력의 혜택을 받고자 열망하는

12) F. Mayorga: *Mandato y contingencia. Estilo de gobierno de Evo Morales*, CESU / FES, La Paz, 2019.

13) 호의와 서비스를 대가로 충성도를 확보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한다(역주).

14) 이 개념은 비록 오래 전부터의 일일지라도 식민 시대의 크리오요부터 시작해, 볼리비아인들이 겪은 여러 변화와 혼혈을 포괄한다. 서벌턴적 조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조건을 변화시키는 원주민의 후손도 있는 데 비해 전자, 즉 크리오요는 계속해서 지배적인 에토스를 차지하고 있다. Ver F. Molina: *Racismo y poder en Bolivia*, Oxfam / FES, La Paz, 2021.

젊은이들이었다. 부패가 항상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런 계산에서는 부패가 낮은 것도 아니다. 일단 카우디요가 멀어지자 모랄레스의 끊임없는 재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이든, 수사적이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가르시아 리네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매우 분열되어 있는 하층민, 서민, 민중 사회의 단합을 보장하는 유일한 인물이 에보라는 점을 계속해서 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 당이 에보 모랄레스를 후보로 내세우지 않고 도 단합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 때문이었습니다.”¹⁵⁾

그 후 지역 카우디요가 몇 명 등장했는데, 이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운동당의 태생적 특징인 조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지역 카우디요들이 에보의 뒤를 따르길 꺼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에보와 그의 측근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때 모랄레스의 카우디요 중심주의, 권력을 영속화하려고 했던 점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즉 국가를 탈주한 점, 중산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 점, 중견 지도자들만 내버려둔 점 등을 비판했는데 이는 정치 분석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제스처였다.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모랄레스는 초케우앙카처럼 자신과 반대되는 인물이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상황에 서라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단지 초케우앙카가 선거판에서 1위가 되는 것을 막았고, 비교적 더 가깝고 자기만의 사회적 기반이 없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다. 즉, 10년 넘게 모랄레스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하면서 특별한 정치적 야망을(또한 정치적 재능도) 보이지 않았던 루이스 아르세 카타코라다.

2019-2020년에 모랄레스가 그토록 높은 국제적 신용이 없었다면, 그리고 코카 재배 노조로부터 무조건적이고도 역사상 중요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19세

15) Gabriel Romano: 《García Linares advierte sobre una 'fragmentación popular' en el MAS para 2025》, *Agencia Efe*, 6/3/2022.

기의 강력한 카우디요이자 대통령인 안드레스 데 산타크루스나 호세 바이비안처럼 완전히 축출되었을 수도 있다. 대신 사회주의운동당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유지할 수 있었고, 적들에게 박해받고 굴욕 당하면서 모랄레스는 살아남길 원한다면 당 내부에 생긴 모든 집단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결국 권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가르시아 리네라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실 [모랄레스 이후 사회주의운동당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쿠데타였습니다. 민중 부문을 권력에서 잔인하게 몰아낸 것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¹⁶⁾

2020년 11월에 모랄레스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영합하여 본국으로 돌아온 후 자기의 중심적 위치를 되찾으려는 과업에 착수했다. 그는 전례 없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며 2021년 3월 선거에 출마할 시장과 주지사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그는 가장 반발이 심한 지역의 카우디요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모랄레스는 헤아니네 아녜스 임시대통령 정부 시절, 사회주의운동당에 속한 전 상원 의장이자 인기 있는 정치인 에바 코파를 쫓아낸 후 다른 당 소속으로 엘 알토 시장에 출마하도록 그녀를 밀어붙였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파는 선거에서 압승했다), 얼마 전에는 평소 적대적인 지역인 산타크루스의 동부 블록 지도자 롤란도 쿠에야르가 계속 모랄레스를 적대시한다는 이유로 그를 사회주의운동당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2020년 10월 선거에서 사회주의운동당이 승리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과거에 누렸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박해가 멎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동시에 볼리비아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인 행정권을 자기가 아닌 두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더구나

16) Ibid.

그 중 한 명은 자기의 정적이라고 선언한 초케우앙카였다.)

한편, 모랄레스가 선거에서 발휘하는 매력과 정치적 매력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그는 수년간의 거의 절대적인 권력 행사, 야당이 그를 상대로 행한 온갖 종류의 비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기 제한 없이 국가 정치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고집 때문에 일그러졌다. 그는 여론 조사에서 아르세보다 인기와 투표 참여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야당 지도자들보다 약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사실, 즉 권력을 그의 손에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운동당 균열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모랄레스 전직 대통령은 2025년에 다시 집권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분명히 드러냈다. 초케우앙카는 이러한 가능성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맞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아르세는 자신의 행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두 경쟁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임기가 한참 남아 있는 정부에 대한 초케우앙카의 반란이나 모랄레스의 정면 공격은 아르세 대통령에게 매우 복잡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 야당은 그를 약화시키거나 더 나쁜 경우, 권좌에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2005년 이후 선거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반대로, 아르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와 사이가 틀어진다는 것은 다른 두 지도자가 정부에 부분적으로라도 관여하기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두 지도자들이 결정적 순간까지 유보하려는 것이고, 이런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르세는 원하건 아니건 간에 자동적으로 카우디요가 되었다. 이는 사회주의운동당의 여러 단체와 정파가 정부 내에서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정부 내 일자리는 볼리비아 정치인들의 주요 욕망의 대상이다(이는 비단 사회주의운동당 정치인의 욕망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몇

달간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시장 관할 지역이며 사회주의운동당은 한 번도 주도한 적이 없는 지역인 산타크루스 데 라 시에라에서 거대한 공직 거래 네트워크가 적발되었다). 아르세는 정치 마케팅 전문가들이 에보 모랄레스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선거 운동에서 에보를 부정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의회에서 대통령직을 수락하는 연설을 할 때도 모랄레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모랄레스가 귀국한 후 아르세는 그를 만나기 시작했지만 국정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에보 모랄레스의 옛 측근들을 자기 팀에 합류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배후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는 일부 장관을 교체하라는 모랄레스의 공개적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르세는 모랄레스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친(親)초케우앙카 관료들을 해임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옛 상관 모랄레스의 계산적인 기질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사회주의운동당 수장인 모랄레스가 대규모 군중의 장거리 행군 ‘조국을 위한 행진(Marcha por la Patria)¹⁷⁾을 조직했을 때 아르세 대통령이 언짢아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이 행군은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아르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서사였지만 이는 분명히 모랄레스의 사회적 힘을 과시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내무부장관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가 2022년 1월 모랄레스 전 정부의 마약 단속 책임자였던 레네 사나브리아를 체포했을 때 — 미국 마약 단속국(DEA)의 이전 수사에서 사나브리아는 마약 밀매를 보호하는 범죄집단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¹⁸⁾ ‘미국 마약 단속국의 아젠다를 따른다는 추정 때문에 모랄레스와

17) 아르세 정부가 대자본가에 대한 세금을 승인하고, 포괄적 자금 세탁 방지 법안을 발의하자 이에 반대하며 2021년 11월 무기한 파업과 거리 봉쇄가 이어졌다. 아르세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제 관련 법안 하나를 폐지하고, 다른 법안의 초안을 철회했다. 이에 에보 모랄레스가 아르세 정부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외치며 대규모 시민들의 행군을 주도했다. 1주일간 수천 명의 볼리비아 시민들이 약 200km를 행군했고, 아르세 대통령도 이 행군에 참가했다(역주).

18) 사나브리아는 2011년 파나마에서 미국 마약 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마이애미 법원은 볼리비아산 코카인 144kg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자백한 그에게 징역 14년과

코카 재배 노동자들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르세는 카스티요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카스티요는 코카 생산을 허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추정되는 지도자들을 비난했다.

이 모든 공개적인 사실과 정부의 내부 집단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르세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2025년 이후에도 국정을 운영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케우앙카와 모랄레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르세는 팬데믹과 아네스 정부(오늘날 볼리비아 정 치권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의 난입 때문에 야기된 엄청난 위기 이후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모랄레스는 공개적으로는 아르세 행정부를 칭찬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아르세의 통치를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장관 교체를 청원한 것이었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르세 대통령은 이 청원을 거절했다.

가르시아 리네라는 이것을 “아르세와 초케우앙카에게 속하는 정치적이고 국가적 리더십과 모랄레스가 상징하는 사회적 리더십이 분리되면서 각각 따로 입후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고 평했다. 전직 부통령은 말을 이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2025년에 대선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운동당 내에서 입후보할지 아닐지 선거에 대한 그들(아르세와 초케우앙카)의 입장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¹⁹⁾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나브리아는 미국에서 복역한 후 볼리비아로 귀국했으며, 수년 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 사건의 예비 심리를 위해 라파스로 이송되었다(여주).

19) G. Romano: ob. cit.

불확실한 미래

요컨대, (사회주의운동당 내부의) 원심력 경향은 매우 크다.²⁰⁾ 모랄레스의 전직 부조종사 가르시아 리네라가 찾고 있는, 사회주의운동당 내의 여러 파벌이 조직의 동일한 틀 안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해줄 ‘알고리즘’은 존재하는가? 이를 아는 사람은 없다. 볼리비아의 정치 역사, 구체적으로는 항상 분열을 일으켜온 볼리비아 좌파 정치 역사에 근거해 내기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답해야 할 것이다.²¹⁾ 그러나 사회주의운동당은 이미 국가 정치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깨고 여러 번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2019년 말 모랄레스 정부의 전복 이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당이 분열하면 야당에게 엄청난 이점을 줄 것이며, 야당은 이를 이용해 좌파 정당을 패배시킨 후 파괴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생존 본능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결합되어, 오늘날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마침내 성취할 수도 있다.

조해진 옮김

20) Ibid.

21) 혁명적 민족주의운동당(MNR: Movimiento Nacionalista Revolucionario)과 좌파운동정당(MIR: Movimiento de la Izquierda)처럼 과거에 민중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정당 중 혁명적 민족주의운동당은 6개의 무리로, 좌파운동정당은 3개의 각기 다른 정당으로 나뉘어 이전의 영향력을 잃었다. 사회주의운동당과 이 정당들의 차이점은, 사회주의운동당은 사회적 혈통과 힘으로 인해 국가의 지배 엘리트와 이념적 타협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